

보 도 자 료	배포일자
	2015.10.25(일) 14:00
10.26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	

담당	(국무조정실) 금융정책과 윤병원 과장(044-200-2190)
	(기획재정부) 국제경제과 이상목 과장(044-215-7630)
	(외교부) 경제협정규범과 한민영 과장(02-2100-7716)
	(법무부) 국제법무과 김철수 과장(02-2110-3661)
	(금융위원회) 구조개선지원과 전요섭 과장(02-2156-9450), 조문희 팀장(02-2156-9905)

제 목 : 다야니와의 국제중재에 우리측 중재인 선정

□ 다야니측이 2015.9.14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-이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Gavan Griffith(남, 74세, 변호사, 호주)를 우리측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2015.10.16일 이를 다야니측에 통보하였습니다.

□ Gavan Griffith 변호사는 호주 법무차관을 역임하였으며,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의장중재인 또는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국제중재 전문가입니다.

* Gavan Griffith 변호사 약력 : 멜버른대 법학석사(LL.M), 옥스포드대 철학박사, Essex Court Chambers(영국 로펌) 및 Owen Dixon Chambers(호주 로펌) 변호사

** 다야니측은 Jan Paulsson(Three Crowns LLP(미국 로펌) 변호사 · 마이애미대 로스쿨 교수)을 중재인으로 선정

□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□ 향후 다야니 국제중재건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